교육부 검정
2018. 9. 14.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정재찬
이성영
신현암
조형주
남궁민

지학사

» 표지 이야기

책 읽기에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설렘과 즐거움이 있다.
책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책 읽기의 다채로움을 동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류사에서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문자가 만들어져서 정보와 지식을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을 널리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도 문자와 인쇄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만 알고 정작 글을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문자 해득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독서량은 선진국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파울 에른스트의 말처럼,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자신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가 듣고 싶어 할 때 말하여 주고 우리가 피곤할 때 침묵을 지켜 준다는데, 이 좋은 친구를 어쩌다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고 싶은 생각으로 이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독서는 독자의 자유와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독자가 자유롭게 읽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흥미를 갖고 읽을 때 앎의 순간이 다가오고 기쁨은 배가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독서의 이론과 실제를 적절하게 어울렀습니다. 독서의 이론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서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글과 매체를 담고자 애썼습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이 다가가 향기를 건네고 삶의 친구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학생들도 넓고 깊은 책의 세계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저마다의 삶을 진실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게 가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지은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씀.

교과 통합 활동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과서

-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서양의 고전과 참신한 제재를 균형 있게 안배하여 융·복합적 사고를 이끌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서 생활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활동을 하게 하는 교과서

- 가치 있는 제재 글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독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독서 방법을 제시하여 능동적·주체적인 독서 태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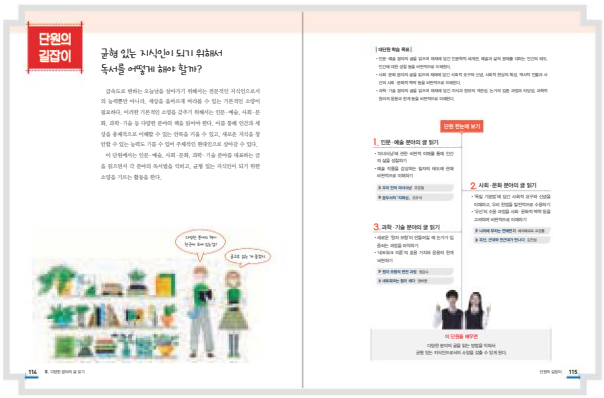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대단원 도입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제시하고, 대단원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표시하였습니다.

2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의 학습 내용과 그 의의를 설명하였고,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과 제재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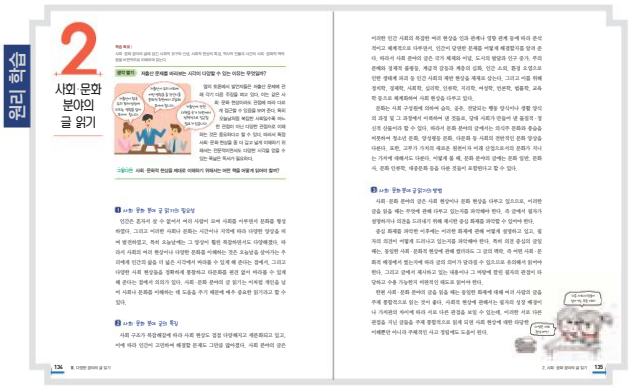
3
소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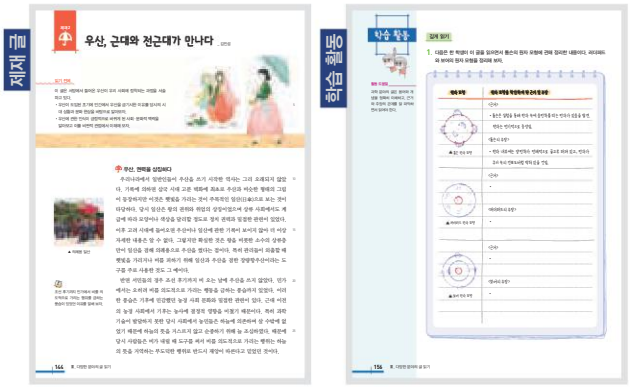
생각 열기 흥미롭고 다양한 소재를 제시하여, 소단원의 학습 주제에 관해 환기해야 할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리 학습 소단원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꼭 알아두어야 할 원리를 간결하게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재 글 **읽기 전에:** 제재 글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제재 글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재 글: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흥미로운 제재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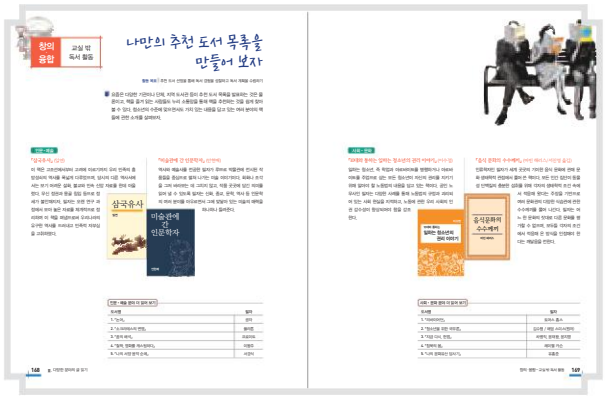
학습 활동 **깊게 읽기:** 글의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과 학습 목표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넓혀 읽기: 제재 글과 관련된 글을 엮어 읽는 활동으로서, 독서 체험을 확장·심화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창의·융합_교실 밖 독서 활동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독서 생활 속에서 총체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독서 습관을 기르고 꾸준한 독서 실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의 핵심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원 학습 성취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례

I. 독서의 본질과 태도

1. 독서의 가치와 글의 선택

독서론_린위탕 14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_정혜윤 22

2. 독서의 생활화 + 한 권 읽기

활동1. 스스로 하는 평생 독서 32

활동2.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 38

창의·융합 | 내 주변에서 관심 있는 독서 공간을 찾아보자 44

II. 독서의 방법

1. 사실적 읽기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_임석재 54

2. 추론적 읽기

36.5도 인간의 경제학_이준구 64

3. 비판적 읽기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_김진석 74

4. 감상적 읽기

별이 빛나는 밤에_정재찬 82

5. 창의적 읽기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_백영옥 90

6. 주제 통합적 읽기

군주론_니콜로 마키아벨리 98

목민심서_정약용 102

창의·융합 | 나에게 알맞은 독서법을 찾아보자 108

III.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1.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우리 안의 마녀사냥_주경철 118

윤두서의 「자화상」_오주석 126

2.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나라에 부치는 연애편지_헤리베르트 프란틀 136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_김진섭 144

3.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_정갑수 152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_정하웅 160

창의·융합 | 나만의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보자 168

IV. 다양한 특성의 글 읽기

1.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_이존오 180

조침문_유씨 부인 186

2.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모든 것은 카오스에서 시작되었다_오비디우스 194

검은 별봄맞이꽃_넬슨 만델라 202

3. 다양한 매체 자료 읽기

세계 명화의 비밀–「모나리자」 편_모니카 봄 두첸 214

가짜 뉴스–뉴스의 얼굴을 한 흑색선전_『블로터』 기획 취재팀 224

창의·융합 | 우리들의 독서 축제를 만들어 보자 232

부록

1. 독서 일지 활동지 237

2. 제재 글 출처 242

3. 사진 자료 출처 245

I.
독서의 본질과 태도

1. 독서의 가치와 글의 선택
2. 독서의 생활화 + 한 권 읽기

창의·융합–교실 밖 독서 활동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단원의 길잡이

독서는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신체적인 성장이 달라지듯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 정신세계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 따라서 좋은 책을 바르게 많이 읽은 사람은 지적, 정서적으로 충일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곧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된다.

이 단원에서는 왜 독서를 해야 하며 어떤 글을 선택해서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본 다음, 각자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독서 활동을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

대단원 학습 목표

-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한다.
-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단원 한눈에 보기

1. 독서의 가치와 글의 선택

- 독서의 가치와 도서 선택법 이해하기
- 독서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읽을 책 선택하기

» **독서론** 린위탕

»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정혜윤

2. 독서의 생활화

- 독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
-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기
- 독서를 생활화하고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하려는 태도 갖기

이 단원을 배우면

독서의 목적에 따라 좋은 글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지 독서 계획을 세워 독서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1 독서의 가치와 글의 선택

학습 목표 |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생각 열기 **독서를 즐겼던 선조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의 도서관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선조들 중에는 책 읽는 것을 즐기는 분이 많았다. 그중에서 이덕무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 불리기를 좋아할 정도로 책 읽기를 즐겼고, 김득신은 『사기』의 「백이전」을 수만 번도 더 읽었다고 할 정도로 독서를 생활화했다. 그런데 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와서 도서관에 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그들은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까?**

1 독서의 의미와 가치

인간은 왜 독서를 하고, 또 해야 하는가? 독서란 말 그대로 글을 읽는 행위이며, 글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자 매개물이다. 그러므로 독서란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 지역과 시대가 만나 서로의 지식과 지혜, 삶과 문화를 주고받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 인간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글 읽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되며,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풍부한 정서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공동체의 사고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각 공동체의 문명을 주고받음으로써 인류 전체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2 독서의 목적에 알맞은 글 골라 읽기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다.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용적인 목적과 교양 및 여가를 위한 목

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용적 목적의 독서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서, 학업 성취를 위한 독서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실용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대체로 읽을 글의 범위가 제한되기 마련이어서, 그에 해당하는 글 중에서 글을 읽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양질의 것을 골라 읽으면 된다.

이와는 달리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에서는 읽어야 할 범위가 열려 있다. 여가를 위해 읽는 글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교양을 위해 읽는 분야도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이외에도 사회, 과학, 예술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런 까닭에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 골라 읽기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이에 관해서는 개인과 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좋은 글이란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글을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관심이 없는 내용이거나 자신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글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읽을 글을 고를 때에는 제목이나 목차, 머리말, 표지 등에 제시된 내용 등을 살피거나, 그 글을 쓴 필자에 관한 정보, 또는 그 글에 관해 선행 독자가 남겨 놓은 비평문이나 독후감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심이나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모든 문화적 소양처럼 좋은 글을 고를 수 있는 능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따르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하게 독서를 하다 보면, 자신의 관심과 수준, 취향에 부합하고 내면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요령

고려 사항		활용 정보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인가? • 실용: 문제 해결, 관계 유지, 학업 • 비실용: 교양, 여가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인가?** • 글의 내용 • 관심과 수준, 취향에의 부합 여부	**글을 고를 때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 • 제목, 목차, 머리말, 표지 내용, 필자 정보, 도서 평 등

제재 1

독서론

_ 린위탕 / 지경자 옮김

읽기 전에

이 글은 독서의 본질에 관한 사색을 담고 있다.

- 독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 어떤 글을 골라 읽어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5

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로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오늘날에도 독서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다. 이것은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곧 이해가 가는 일이다.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의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다. 그 사람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知己)뿐이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신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런데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즉시 별천지에 드나들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양서(良書)라면 독자는 홀연 세계 제일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것이 된다. 그는 독자를 유도하여 먼 별천지의 아득한 옛날로 데리고 가서 고민을 덜어 주고,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맹자와 사마천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루 두 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 받는 특권을 얻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여행과 똑같은 것이다.

그뿐인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다. 설사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라도 그런 사상(事象)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책 속에서 겪는 물리적 사건은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독자는 구경꾼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사마천(기원전 145?~ 기원전 86?): 중국의 역사가이자 『사기(史記)』의 저자. 『사기』는 상고 시대부터 한나라 무제 때까지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역사서임.

그러므로 훌륭한 책은 이러한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사실의 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말하면 신문을 읽느라고 소비한 막대한 시간을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독자는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실·사건의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다.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적절히 말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시인이며 소동파(蘇東坡)의 친구였던 황산곡(黃山谷)인 것 같다. 그는 "사대부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말에 맛이 없고,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대해도 가증스럽게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독서는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으로서 독서의 목적은 이것뿐이며, 이 점을 노리는 독서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 향상'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 향상 따위의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 독서의 즐거움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난 셰익스피어를 읽어야만 한다. 소포클레스를 읽어야만 한다. 또 엘리엇 박사의 『5피트 책꽂이』를 전부 읽어야만 한다. 읽어서 지식을 넓혀야 한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학식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 하룻밤쯤 그는 자신에게 채찍질하여 「햄릿」을 읽는다. 그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온다. 그러나 얻은 것은 단지 「햄릿」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은 국회 의원이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읽어 보는 따위의 행위와 같다. 그것은 연설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지 독서는 아니다.

황산곡에 따르면, 독서의 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용모의 매력이라 해도 단순한 미모와는 물론 뜻이 다르다. 황산곡이 말하는 '볼썽사나운 풍모'란 육체적인 추함이 아니다. 추해도 매력이 있는 얼굴이 있거니와 아름다워도 전연 멋이 없는 얼굴도 있다. 나의 중국인 친구 중에 머리 모양이 폭탄 같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는 언제 보아도 호감이 간다.

사진상으로 말한다면, 서구의 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체스터턴의 얼굴이다. 콧수염과 안경과 제법 텁수룩한 눈썹과 주름 잡힌 미간의 선 등이 악마처럼 어우러져 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이마 속에 숱한 사상이 약동하고 있으며, 묘하게 사람을 쏘아보는 눈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받

자신의 독서 경험 중에서 깊은 명상으로 빠져들었던 경우를 떠올려 보자.

황산곡(1045~1105): 중국 북송의 시인인 황정견(黃庭堅). 산곡(山谷)은 호(號)이다.

소포클레스(기원전 496?~기원전 406):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그리스 비극을 기교적·형식적으로 완성함. 작품에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등이 있음.

『5피트 책꽂이(Five Foot Shelf)』: 하버드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찰스 엘리엇이 1909년에 내놓은 인문학 고전 선집으로, 당시 뭇 교양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음.

체스터턴(1874~1936): 영국 언론인 겸 소설가. 소설 「브라운 신부의 무지」를 썼음.

는다. 이런 형이 황산곡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분이나 입술연지로 치장된 얼굴이 아니라,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이다.

담화의 품격은 오로지 독서 방법에 달려 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독서 방법에 달려 있다.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담화 속에서도 풍미가 우러난다. 담화에 풍미가 있다면 저술에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 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는 역시 개인의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것은 소화력에 확신이 서기 때문이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害毒)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이다. 원중랑은 "읽기 싫은 책은 주저 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한다.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에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은 흐른다. 물은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깊

풍미(風味):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됨됨이.

원중랑(1568~1610):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인 원굉도(袁宏道). 중랑(中郎)은 자(字)이다.

은 웅덩이로 들어가면 잠시 괴었다가 굽이쳐 흐른다. 심산(深山)의 늪에 들면 흔연히 거기서 휴식하고, 물살이 센 내를 만나면 사납게 흐른다. 이처럼 물은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정하에서,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읽어야만 할 책이 있을 뿐이다.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공자는 "50세에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 45세에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어』의 공자 이야기에는 실로 온화한 풍격(風格)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접하는 사람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참맛을 모른다.

그리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혹은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 읽으면 책의 재미는 한층 깊고, 저자와 교분을 끊은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러므로 양서는 두 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두 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이다. 진실로 얻는 바는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저자의 통찰·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논어』에 관해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이천(程伊川)은 이

두 번 이상 읽은 책을 떠올려 보고, 그 책을 왜 여러 번 읽었으며 반복해서 읽을 때는 처음 읽을 때와 어떻게 달랐는지 말해 보자.

흔연히: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풍격: 사람의 풍채와 품격.

렇게 말하였다.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자는 다 읽어도 감감하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또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게 기뻐한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할 때는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고금(古今)의 작가 중에서 그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숙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누구에게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말하자면 첫눈에 반함과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아는 것이다.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키, 얼굴, 머리칼의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인다.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문체나 풍미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에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이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구를 탐독(耽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한다. 작가가 주문을 외면 독자는 기꺼이 그에 홀리고, 때에 따라서는 음성과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작가와 닮아 간다. 이리하여 문재(文才)상의 연인에게 빠져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 『생활의 발견』

사숙(私淑):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음.

문재(文才):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재능.

린위탕 (1895~1976) | 중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 주요 저서로 『나의 국토, 나의 국민』, 『생활의 발견』 등이 있다.